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10 [31~34]

(가)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지인의 과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며 '아재비'를 떠올린다.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아재비'는 '나'를 보살피 주며 작은 호수를 만들어 주었다.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리다가 딸과 놀아주던 '나'는 품에 안은 딸이 잠들자 딸에게 속삭인다.

아이 머리의 목직환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 긴장이 풀린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애, 밝은 전쟁이다. 밝은 늘 전쟁이었다. 어느 해 어느 시 어느 대륙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 아무리 방으로 방으로 숨어들고 아무리 방패를 꺼내 들어도 사망의 문틈으로 전쟁의 냄새는 새어 들어오지. 그 냄새는 딱딱하고 질기고 직선으로 세상을 자르는 그런 **고약한 냄새지**. 아, 너를 위해 세상의 미운 단어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에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주고 모든 악취 나는 단어에 지상의 들꽃 이름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너도개미자리, 둥근바위솔, 짙레, 평야주, 두메두구풀, 미나리아재비, 땅비싸리, 무릇꽃, 청사조, 패랭이, 쑥부쟁이, 아 그리고 채송화, 채송화……. 이애, 너는 아무래도 시인이 되어야겠다.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악취에 향기를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너는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 발가락, 땅콩, 코딱지 같은 단어를 예쁘게 발음할 줄 아는 너. 처음 글을 배울 때 네 성인 '박'자를 **빼뿔빼뿔하게** 써 놓고 글자가 웃고 있다고 말하던 너. 이 먼 과수원의 오수의 나른한 틈새에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아 비릿한 그 냄새를 이애, 빨리 지워 다오. 아주 강력한, 아주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너의 웃음. 이애, 그토록 질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너는 아마도 **외계인인 모양이다**. 그래서 네가 **자전거에만** 오르면, 너의 그 짧은 가는 다리를 소금쟁이만큼 빠르게 놀려 앞으로 갈 때면 나는 그만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 너의 자전거가 **가속이** 붙고 **앞바퀴가** 들려지고, **공중으로** 공중 저 높이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구나.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 달력에 찍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살, 사랑, 사람, 살림, 서리, 성에, 잘 살시오…….

그가 남긴 낡은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않이 들어차 있었다. 그 암호 문자 중의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딱지 편지로 접혔다. 변함없는 기쁜 글씨. 변함없이 세 번 돌려 접은 딱지 편지. 글씨 그것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에 걸쳐 모두 다섯 번을 나는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다. 수신인은 그의 처자였다.

(중략)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리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 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려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출산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끈게 뻗어 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낮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격정에는 무관심한 채 늙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 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영킨 아재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혈혈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읊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에 보던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도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망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패인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 최윤, 「속삭임, 속삭임」-

* 남로당 : 1946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재비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겠군.
- ② 아재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겠군.
- ③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겠군.
-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 때문이었겠군.
- 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속삭임,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①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아재비의 속삭임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보 기>—

「속삭임,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사상을 지녔음에도 이를 초월하여 화해와 공존하는 사람들을 형상화 하였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낸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와 아재비가 하는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가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띤다는 사실까지 잡고 글을 읽는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지인의 과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며 ‘아재비’를 떠올린다.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아재비’는 ‘나’를 보살피며 작은 호수를 만들어 주었다.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리다가 딸과 놀아주던 ‘나’는 품에 안은 딸이 잠들자 딸에게 속삭인다.

아이 머리의 목직한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 긴장이 풀린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애, 밝은 전쟁이다. 밝은 늘 전쟁이었다. 어느 해 어느 시 어느 대륙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 아무리 방으로 방으로 숨어들고 아무리 방패를 꺼내 들어도 사망의 문틈으로 전쟁의 냄새는 새어 들어오지. 그 냄새는 딱딱하고 질기고 직선으로 세상을 자르는 그런 교약한 냄새지. 아, 너를 위해 세상의 미운 단어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에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주고 모든 악취 나는 단어에 지상의 들꽃 이름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너도개미자리, 둥근바위솔, 쫄래, 명아주, 두메투구풀, 미나리아재비, 땅비싸리, 무릇꽃, 청사조, 패랭이, 쭉부쟁이, 아 그리고 채송화, 채송화……. 이애, 너는 아무래도 시인이 되어야겠다.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악취에 향기를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너는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 발가락, 땅콩, 코딱지 같은 단어를 예쁘게 발음할 줄 아는 너. 처음 글을 배울 때 내 성인 ‘박’ 자를 뽀뽀뽀하게 써 놓고 글자가 웃고 있다고 말하던 너. 이 먼 과수원의 오수의 나른한 틈새에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아 비릿한 그 냄새를 이애, 빨리 지워 다오. 아주 강력한, 아주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너의 웃음. 이애, 그토록 짙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너는 아마도 외계

인인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에만 오르면, 너의 그 짧은 가는 다리를 소금쟁이만큼 빠르게 돌려 앞으로 갈 때면 나는 그만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 너의 자전거에 가슴이 붙고 앞바퀴가 들러지고, 공중으로 공중 저 높이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구나.

* 남로당 : 1946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지인의 과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나’는 ‘아재비’를 떠올리는데, 그는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인물입니다. 어린 딸의 무게를 느끼며 딸이 잠들었음을 느끼는 ‘나’는 딸을 위해 온 세상에 미운 단어들을 뒤바꾸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딸이 ‘고전적인 시인’이기를 바라는 것을 보아 ‘나’는 딸이 ‘박’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 달력에 찍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살.사랑.사람.살림.서리.성에.잘 살으오…….

그가 남긴 낡은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않이 들어차 있었다. 그 암호 문자 중의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딱지 편지로 접혔다. 변함없는 기름한 글씨. 변함없이 세 번 돌려 접은 딱지 편지. 글씨 그것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에 걸쳐 모두 다섯 번을 나는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다. 수신인은 그의 처자였다.

(중략)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아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 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출산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곧게 뻗어 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낮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연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느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아재비’가 남긴 공책에 적혀있던 내용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에 걸쳐 편지 심부름을 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중략) 이후에 황폐해진 과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정겨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뒷부분으로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그 비어 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앙긴 아재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혈혈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읊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에 보면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도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땠진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패인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 최윤, 「속삭임, 속삭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남로당 간부였던 아재비와 생각보다 친하게 지냈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아버지는 반공주의자였고 아재비는 남로당 간부였음에도 둘이 친하게 지냈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나’는 그때 그들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에서의 생활은 아버지와 아재비가 교감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나’에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딸에게 속삭이면서 전쟁의 더러운 세상이 아닌 딸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갈망이 드러나는 첫 번째 속삭임과, 아버지와 어째서인지 친했던 남로당 간부 아재비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추억을 곱씹으며 자신의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이 이 두 사람의 우정과 기억으로 인해 안온한 미소로써 기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인 ‘늦은 밤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이 등장하지만,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이 비현실적 사건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의 독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억과 서술자가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술자는 처음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나’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⑤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상대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아재비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겠군.

→ 아버지는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영킨 아재비의 모습이었다'는 '나'의 회상을 근거로 보아 아재비에게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아재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겠군.

→ '어떻던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을 보아 아버지는 그의 신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남로당의 간부였던 아재비를 발견하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의형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겠군.'

→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과수원의 생활은 안온하게 기억하게 하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 때문이었겠군.

→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도 달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을 위해서입니다.

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

→ '나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던 아버지를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이었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③

<보 기>

「속삭임,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①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질기고 직선으로 세상을 자르는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와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서 '나'가 느끼는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아재비의 속삭임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영킨 아재비의 모습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악취에 향기를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④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둘의 끈끈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라는 이념적인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과수원 주변의 풍경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풍경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공책

①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음을 보여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있는 '모호한' 암호 문자였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용된 문장이 딱딱한 어투의 글이 아님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② 자연을 읊은 글들로만 가득 차 있어 '나'가 아재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 '나'는 이 공책에 적힌 말을 '모호한 암호 문자'라며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감성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책에는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다른 글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어린 '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어린 '나'는 앞에서 말했듯 '모호한 암호 문자'라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④ 아재비가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나'가 깨닫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아재비의 공책에는 '딱딱한 어투의 글'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나'가 공책을 본 후 '어떻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공책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재비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음을 '나'가 짐작하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나'는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을 보고 '그가 겪어 온 모든 사고의 갈피들'이 적혀 있다며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